

엄마, 힐링하러 가요

소춘아트팩토리 예술치유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은 소춘아트팩토리 예술치유 프로그램 '천 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의 참가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천 번을 흔들려야 엄마가 된다'는 엄마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으로 오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 여성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예술치유프로그램은 음악공연과 함께하는 '나? 쿨한 엄마!' 강의를 시작으로 연극으로 각색해 보는 'My life' 그리고 '선녀, 하늘을 날다'라는 주제로 웃을 리 품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여유주연상 시상식' 시간은 참여자가 직접 레드카펫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총 7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강사는 문화예술전문강사 추말숙,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경래, 바다 프로젝트 임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대표 양용, 메이크업 디자이너 박원미씨가 참여한다.

프로그램 참가대상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30~40대 주부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10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전프로그램은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실시하는 '소춘아트팩토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문의 062-670-7972. /오광록기자 kroh@



광주·전남 43개 아동센터 맞춤 문화·예술교육 시작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인 '지역아동센터, 이웃을 만나다'가 광주·전남 43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된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문화공동체 이웃사랑(대표 김혜일)이 주관한다.

지역아동센터 700명의 어린이들은 1년 동안 음악(아카펠라, 합창)과 미술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받게된다.

25여명의 예술전문강사들이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가 속한 마을과 이웃들을 아동들이 직접 탐색하고 만난 후 스토리텔링을 거쳐 그 결과물을 창작곡과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다.

매주 1회 진행되는 프로그램 외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문화예술 캠프 진행 및 찾아가는 음악공연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말에는 43개 센터가 함께 모여 펼치는 공연, 전시 결과발표회 축제도 준비 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동행... 첼로와 함께 한지 50년

초대... 제자들이 고별무대 마련

배상철 목포대 교수, 21일 금호아트홀

지난 2013년 열린 첼리스트 배상철(목포대) 교수의 회갑 연주회 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다. 배 교수의 제자 30여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파헬렐의 '개논'을 연주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그날 제자들이 연주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남들이 저에게 농사를 잘 지었다고 해요. 항상 고마운 마음입니다. 제자들이 많아 항상 북적북적대요. 친구같이 부대끼며 살아요. 지금껏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6일 전화 인터뷰에 응한 배 교수는 그날의 감흥을 기억해 내며 웃었다.

배 교수는 올해로 첼로와 인연을 맺은 지 50년을 맞았다. 배 교수는 목포대에 음악학과가 생겼던 1979년부터 학생들을 가르쳤고, 1981년 정식 교수로 임용돼 34년간 제자들과 함께했다.

'아시아아트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배상철 교수 첼로와의 동행 50년(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연주회가 열린다.

"장년이 2년 남기는 했지만 나이가 들면 힘들 것 같아 지금 공연을 마련했어요. 제 고별 연주회라고 할 수 있죠. 연주회 레퍼토리는 밝고 가볍고 관객들이 듣기 좋은 곡들로 정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음악회에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 고별 연주회는 협연 무대로 마련했다. 피아노 한대와 연주하는 독주회와 달리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추는 건 품이 많이 드는 일이다. 레퍼토리는 홀스터의 '슈트 2번 세인트 폴 비발디의 '첼로 콘체르토' 하이든의 '첼로 콘체르토 C장조', 반디니의 '첼로 소나타 F장조',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등이다.

배 교수는 초등학교 때부터 KBS 어린이합창단에서 활동했다. 첼로를 접한 건 초대부중 3학년 때. 포터블 전축으로 음악을 자주 듣고는 했는데 어느 날 도브르자의 '첼로협주곡' 선율에 푹 빠져 버렸다.

당시 광주 시내에서 첼로를 배우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어렵게 교습을 받았고 경희대 음악대학을 거쳐 국립교향악단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공연의 오케스트라 지휘는 목포대 제자이자 현재 광주시립교향악단 첼리스트로 활동중인 오승씨가 맡았다.

배 교수는 올해로 60년을 맞은 광주일보사 주최 호남예술제 심사위원으로도 오랫동안 인연을 맺으며 예술 꿈나무들을 발탁했다.

"호남예술제는 오랫동안 우리 음악인들의 등용문이 되어 왔죠. 현재 활동하는 많은 음악가들이 호남예술제를 통해 꿈을 키워갔어요. 앞으로도 호남예술제가 꾸준히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기초예요. 벽돌 하나하나를 잘 쌓아야 건물이 잘 올라가는 것처럼 기본이 튼튼해야 연주도 잘 할 수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공부하는 이들이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자들은 이번 공연의 '초대의 글'을 통해 "교수님은 저희에게 연인같은 분입니다. 학창 시절 열심히 노력했던 것도 연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저희도 교수님의 자랑스럽고 든든한 음악인이 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의 062-222-31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해라 수궁가 완창 무대

목요일연국악한마당, 9일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진행하는 목요일연국악한마당이 소리꾼 박해라씨를 초청했다.

오는 9일 오후 6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날 무대에서 박 씨는 '수궁가' 완창무대를 선보인다.

2시간 30분에 이르는 '수궁가'는 자라와 토끼 등의 동물들이 여러 가지 인간상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박 씨가 들려주는 보성소리 '수궁가'는 리듬이 강조된 장단이 특징이다. 전남대 국악과와 동 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박 씨는 현재 창극 프로젝트 '소리치다' 대표로 활동중이다. 전남대 소리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도 맡고 있다.

교수는 박준호(진도군립민속예술단 상임단원)씨다. 전시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



사랑의 이름으로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10일 강숙자 오페라 라인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매월 둘째주 금요일) 4월 행사가 10일 오후 7시30분 문화 공간 '강숙자 오페라 라인'(임동성당 옆 서평선협 4층)에서 열린다. 이달의 주제는 '사랑의 이름으로'다.

주요의 노래로 '사랑의 노래' '사공이 노래' '기다리는 마음' '떠나가는 배'를 함께 부를 예정이다.

최해운씨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한다.

배우는 노래는 KBS FM 우리가곡으로 널리 알려져 결혼식 축하로도 많이 불리는 '축복의 노래'(문정희 시, 김규환 곡)다.

이번에 새로 창단한 '젠블 보이스' 남성 중창단도 이날 '도라지꽃' '나물 캐는 처녀'를 들려주고, 특별 초청한 바리톤 김대수(사진)씨가 '그대 있음에' '신고산 타령' 등을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묵연화'다. 회비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거리를 제공한다.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명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쌍촌동 5층건물 매 16억(보 1.8억 월750만)
- 신창동 4층건물 매 27억(보 4.1억 월 1,260만)
- 수완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석사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두암동 상가건물 매 42억(보7억 월2,300만)
- 장덕동 8층구분상가 매매 826㎡ 8억(조정가,분할매매가)
- 장덕동 8층 상가 826㎡ 임대 보 1억/ 월 450만 (패밀리레스토랑적합)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서구 벽진동 대지 724㎡ 매 4억9천
- 서구 마록동 대지 701㎡ 10억
- 서구 유촌동 대지 1,730㎡ 매10억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682㎡ 9.8억(신설도로접)
- 광산구 삼도동 1층주거지 전 6,900㎡ 19억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7.9억
- 장성군 진원면 선적리 답 2000㎡ 매 3.6억(전원주택부지)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담양군 월산면 잡종지 29,000㎡ 14억5천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함)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현영

☎ 010-5536-0382

30% 할인

근조화환3단

슬픈날 마음을 나누며 조의,부의,근조

30% 할인

축하화환3단

결혼, 고회, 전시회, 개업, 준공식 축하화환

전국꽃배달서비스

전국농장직영

환환 ▶ 100,000

전국 ▶ 70,000

▶ 80,000

전국화환 꽃도매 362-1122, 010-5532-7799

팩스 942-6633 농협(김희진)175359-56-13018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품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미화방수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능성동 660-29